

# 2002년 인쇄 10대 뉴스

- ①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 ② 인쇄정보센터 개관
- ③ 민재기 · 객득룡회장 선출
- ④ 인쇄유공자 훈장 · 포상 잇달아
- ⑤ 2002 책마당 큰잔치 열려
- ⑥ 보진재 창립 90주년 맞아
- ⑦ 지방선거 인쇄인 10명 당선
- ⑧ 경인쇄조합 오사카조합과 교류 협정
- ⑨ 청주시 9월 4일을 '직지의날'로 제정
- ⑩ 프린팅코리아 창간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추진해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에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 골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매 3년마다 출판 및 인쇄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명시돼 있으며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폐지토록 했다.

이 법률에 따라 인쇄산업은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인해 전자인쇄물까지 인쇄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시설 현대화 지원은 물론 각종 진흥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명시돼 있다.

## 인쇄정보센터 개관

인쇄산업의 정책적 지원과 대중적 홍보의 모토가 될 인쇄정보센터가 개관됐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4월 29일 고건 서울시장, 박광태 국회산업자원위원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임래규 산업자원부차관, 최준명 한국경제신문사사장, 유기정 세계중소기업연맹총재, 정대철 민주당최고위원, 박성범 한나라당 중구지구당위원장, 민재기 인쇄협회회장, 광득룡 인쇄연합회회장, 박충일 인쇄연구소이사장 등 내빈과 500여명의 인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인쇄정보센터는 중구 쌍림동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부근으로 건물 1층에 역사관, 문화관, 전시장 등으로 구성된 '인쇄문화홍보관'이, 2층에는 특수인쇄 관련상품 전시장과 함께 디자인개발실, 비즈니스상담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 민재기 · 광득룡회장 선출

올해 인쇄단체 정기총회에서 신임단체장들이 새롭게 선



출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200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민재기회장과 광득룡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인쇄협회는 2월 6일 세계일보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 민재기 정문사 문화사장을 임기 3년의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인쇄연합회는 2월 26일 서교호텔에서 광득룡 삼문인쇄 사장을 만장일치로 제18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민재기회장은 충남 부여출신으로 근면장(훈장), 대통령표창, 서울시표창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인쇄문화협회 감사와 부회장을 역임했다.

광득룡회장은 경북 포항출신으로 인쇄문화협회부회장, 서울인쇄조합이사장, 인쇄연합회이사를 역임했으며 문화훈장을 수훈하는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 인쇄유공자 훈장 · 포상 잇달아

올해는 인쇄유공자에게 수여되는 훈장 및 정부포상이 많은 해였다.



대한인쇄문화

협회의 추천으로 10월 19일에 열린 2002년도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양지사 이배구회장이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9월 14일 제14회 인쇄문화의 날에는 대통령상 1명, 국무총리상 2명, 문화관광부장관상 12명 등이 수상했다.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는 고수곤 전광인쇄정보(주)대표이사가 대통령상을, 유상태 천풍전산인쇄사대표와 리우식 (주)경림코퍼레이션대표이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이용산 제일칼라프로세스대표, 김재봉

서일인쇄사대표, 김충웅 (주)한성실업대표이사, 박선호 동양정판인쇄사대표, 이재환 태양씨앤씨 대표, 이영우 (주)영재종합인쇄대표이사, 김영철 두성칼라대표, 김정전 대화특수인쇄공사대표, 양순정 정양사대표, 이우열 명성칼라대표, 김문선 동양인쇄사대표, 윤성로 대명전산품(주) 상무이사 등이 수상했다.

## 2002 책마당 큰잔치 열려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의 제정  
을 기념하고 독  
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  
한 '2002 책마

당 큰잔치'가 '책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덕수궁에서 마련됐다.

문화관광부주최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교보문고가 주관하고 대한인쇄문화협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잡지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청소년단체협의회, 온라인서점협의회가 후원했다.

인쇄협회는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과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때 한국의 상징물로 기증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인쇄동판, 목활자본인 훈민정음(訓民正音) 등의 활자로 고인쇄체험관을 운영해 가족들과 함께 나온 어린이, 학생, 외국인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다.

## 보진재 창립 90주년 맞아

1912년 창업해 인쇄 단일업종으로 4대째 가



업을 이어가고  
있는 보진재가  
창립 90주년을  
맞았다. 보진재  
는 8월 14일 경  
기도 파주출판단

지 내 파주신공장에서 창립 90주년 및 신공장준공 기념식을 거행했다.

1912년 8월 김진환선생이 종로1가 관철동에서 보진재석판인쇄소라는 상호로 창립된 이 회사는 김낙훈 2대 사장이 취임하였고 1953년에 김준기 3대 사장이 취임하였으며 1992년에 현재의 김정선 4대 사장이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진재는 1924년에 민간업체 최초로 오프셋인쇄기를 도입했고 1933년에는 크리스마스 쉼을 인쇄한 바 있다. 1935년에는 오프셋자동인쇄기를 최초로 도입하는 한편 역시 국내 최초로 사진원색분해를 시작했다. 1965년에는 한국 최초로 베트남에 교과서를 인쇄하여 수출하는 하는 등 역사적인 각종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지방선거 인쇄인 10명 당선



6·13 지방선거에서 10명의 인쇄인이 당선됐다. 총 24명이 의회 진출을 시도한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에선 6명중 3명이 당선됐으며, 기초의원 선거에선 총 18명이 나서서 7명이 당선 기쁨을 누렸다.

시·도의원 당선자는 인천 중구 제1선거구의

안병배(진문사인쇄사), 충남 연기군 제1선거구 유환준(일신인쇄사), 전북 무주군 무주제1선거구 윤완병(현대인쇄광고) 의원등이다. 구·시·군의원 당선자는 도봉구 창동 5선거구 목충균(세로와상사), 송파구 거여동 1선거구 장경선(이레문화사), 부산 중구 중앙동 영주1동 김만택(한일인쇄·사진 좌측), 부산 동래구 사직1동 강신두(영남종합인쇄), 대구 북구 침산3동 김형구(경원인쇄사), 보령시 대천1동 임대식(명문당인쇄사·사진 우측), 경주시 동천동 김병태(경주인쇄사·사진 가운데) 의원 등이다.

### 경인쇄조합 오사카조합과 교류 협정

서울경인쇄정  
보산업협동조합  
은 한·일 양국  
조합단체간의  
우호 증진과 협  
력을 도모하기



위해 9월 16일 '한·일 인쇄문화 교류 협정식'을 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김학규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통상과 산업의 벽이 사라지고 지역간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일간에 인쇄관련 정보와 기술인력 상호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인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주시 9월4일 "직지의 날"로 제정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직지의 날이 매년 9월 4

일로 제정됐다. 청주시는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직지가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인쇄출판 전시회와 국제학술회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치뤄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직지심체요절은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됐다.



### 프린팅코리아 창간

인쇄신문을 발행해온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인쇄인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최신 정보와 기술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



한 심층취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월간 프린팅코리아'를 7월에 창간했다. 이 잡지는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그리고 제판, 인쇄, 후가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와 함께 특수인쇄 분야까지 총망라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쇄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최신의 정보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화에 발맞춰 전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를 객원 기자로 위촉, 인쇄관련 전문지로서 기능을 다하고 모든 페이지를 컬러화하여 타 잡지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